

한 국 사

[강평 및 해설 : 김석훈 교수]

총 평

■ 이번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최상이나 상의 난이도로 분류되는 문제는 없었다. 평소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90점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수험생의 입장이고, 시험장에서 느꼈을 난이도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

■ 출제 내용 분석 : 다음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기준 (나 책형 기준)

* 최상(90~100) / * 상(80~90) / * 중(60~80) / * 하(60점 이하)

문항	난이도	주제
01	하	청동기 시대
02	하	여러 나라의 성장
03	중	고려 인종 대의 사실
04	중	3·1운동 이후의 사실
05	중	조선 성종의 업적
06	상	고려의 토지제도
07	중	국권 피탈 순서
08	중	발해 무왕 대의 사실
09	중	한국독립군
10	중	조선 후기의 경제
11	중	단군에 대한 인식
12	하	삼국유사
13	중	동학농민운동
14	중	신라 중대의 경제 상황
15	상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16	중	조선의 교육기관
17	중	외국과의 조약
18	상	조선의 중앙 통치 조직
19	중	박은식
20	중	해방 이후의 정세

■ 세부내용 분석

6번 문제의 경우 사료의 내용을 역분전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 상 난이도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줄에 '비로소 직관, 산관 각 품을 나누었다.'라는 내용으로 유추해 보아 '시정 전시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번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3번 선지와 4번 선지가 혼돈의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 상 난이도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것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18번 문항은 인물사인 듯 보이지만 조선의 통치조직을 묻는 문제이다. 이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선지의 이조 좌랑을 모를 것 같아 상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의 내용이 너무나 확연히 틀려 있어 상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설은 김석훈 한국사 카페, 이그잼학원 홈페이지, 법률저널, 유튜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 간절함, 진심, 경찰 한국사 김석훈 선생

0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정답 ③ | 청동기 시대 | 하

③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그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로 나뉜다.

【오답풀이】

- ① 연천 전곡리 유적은 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 ② 창원 다호리 유적은 문자의 사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붓이 발견된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 ④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0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욱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정답 ④ | 여러 나라의 성장 | 하

(가)는 부여, (나)는 동예이다.

④ 동예에서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존재하였다.

【오답풀이】

- ① 5부족 연맹국가로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 ② 신지, 읍차 등의 정치적 지배자가 존재한 나라는 삼한이다.
- ③ 소도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한 나라는 삼한이다.

0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 (중략) …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청계전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정답 ③ | 고려 인종 대의 사실 | 중
다음의 (가)는 인종이다. 인종은 이자겸, 척준경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③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인종은 승려 묘청을 가까이 하였는데, 묘청은 왕에게 서경 천도와 청계 전원을 건의하였다. 왕은 이를 받아들여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으나 김부식 등 개경파 귀족들의 반대로 끝내 천도는 무산되었으며, 이에 묘청은 서경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다.

【오답풀이】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한 것은 원 간섭기 이후의 상황이다.
- ②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 원나라로부터 전래되었으며, 이때 『주자가례』도 함께 전해져 보급되었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것은 고종 때인 1232년(고종 19)이다.

0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 (중략) …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③ | 3·1운동 이후의 사실 | 중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난 것은 1923년이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26년이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이다.

【오답풀이】

- ③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것은 1912년이다.

0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리한 의례서이다.

정답 ④ | 조선 성종의 업적 | 중

밑줄 친 ‘성상(聖上)’은 성종이다.

④ 성종 대인 1474년(성종 5) 신숙주, 정철 등은 왕명을 받아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가 편찬하였다.

【오답풀이】

-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편찬된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편찬한 아동 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효자·충신·열녀의 3강에 대해 다룬 윤리서이다.

0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정답 ① | 고려의 토지제도 | 상

다음 (가)의 토지제도는 경종 원년(976)에 시행된 시정 전시과이다. 시정 전시과에서는 관품과 함께 인품을 고려하여 역분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① 시정 전시과는 전왕인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리를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는데, 관품의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품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서 인품이란 관료 개인의 정치적 위세와 명망, 조정에 대한 충성도를 말한다.

【오답풀이】

- ②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문무 차별이 완화된 것은 문종 때 시행된 경정 전시과이다.
- ③ 고려 말 공양왕 때 제정된 과전법에 관한 설명이다.
- ④ 태조 때 제정된 역분전에 관한 설명이다.

0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정답 ① | 국권피탈 순서 | 중

을미사변 발발은 189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은 1905년,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이다.

①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1908년이다.

【오답풀이】

②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것은 국권피탈 이후인 1911년이다.

③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한 것은 1889년으로 을미사변 발발 이전이다.

④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여 보안회가 창설된 것은 1904년으로 (가) 시기에 해당한다.

0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정답 ④ | 발해 무왕 대의 사실 | 중

(가) 왕은 발해 2대 국왕인 무왕이다. 무왕은 흑수말갈을 공격하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수교하였다.

④ 무왕은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하자 아우인 대문예를 보내 이를 토벌하려 하였으나 대문예가 이에 반발해 당으로 망명하자 장문휴에게 명하여 당의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장문휴가 이끈 발해 수군은 등주에 상륙해 자사 위준을 살해하였다.

【오답풀이】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꾼 것은 713년으로 초대 고왕 때이다.

② 신라가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낸 것은 헌덕왕 때인 812년이다.

③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3대 문왕 대이다.

0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정답 ③ | 한국독립군 | 중

다음 전투는 1933년 4월 한국독립군이 중국 길림구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과 만주국 연합군을 격파한 사도하자 전투이다.

③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경박호 전투 등에서 승전을 거두었다.

【오답풀이】

① 양세봉은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한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이다.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이다.

④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창설된 것은 1937년이다.

10. 밑줄 친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④ ㉣ - 발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정답 ① | 조선 후기의 경제 | 중

② 담배는 인삼 등과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고구마는 1763년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전래한 작물로 감저(甘藷)라 불렸다. 고구마가 전래된 후 『감저보』, 『감저신보』 등의 고구마 재배법을 저술한 책이 간행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는 밭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는데, 벼농사에서의 이앙법과 함께 농업 생산력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오답풀이】

① 정조 때는 1791년(정조 15)에는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정답 ③ | 단군에 대한 인식 | 중

- ① 충렬왕 때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는 단군부터 역사를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에서 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간단히 엮은 책으로 단군에서 기자로 정통이 이어진다는 단군 정통론의 입장으로 저술하였다.
- ④ 3·1운동 당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단군기원을 사용하여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오답풀이】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동명왕의 건국신화를 다룬 책으로 단군신화와는 관련이 없다.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중략)…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정답 ② | 삼국유사 | 하

다음 내용은 충렬왕 때 일연이 쓴 『삼국유사』의 서문이다.
③ 삼국유사는 단군에서 후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불교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오답풀이】

- ① 불교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한 책은 고종 때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이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이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해 기전체로 서술한 역사책은 인종 때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다.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정답 ④ | 동학농민운동 | 중

(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 관군과 맺은 조약인 전주화약이다.
④ 전주화약 체결 이후 일본군은 경복궁은 무단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으며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이에 남접과 북접으로 나뉘어진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오답풀이】

- ①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한 것은 전주화약 체결 이전이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는 등 학정을 벌인 것은 전주화약 체결 이전이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한 것은 전주화약 체결 이전이다.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9주 5소경	대공의 난	독서삼품과	
확정	설치	발발	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정답 ① | 신라 중대의 경제상황 | 중

9주 5소경이 설치된 것은 신문왕, 대공의 난이 발생한 것은 해공왕 때이므로 (가) 시기는 신라 중대에 해당한다.

- ① 성덕왕 때에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오답풀이】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신설된 것은 지증왕 때로 (가) 시기 이전이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해 진대법을 제정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이다.
- ④ 녹읍은 신문왕 때인 689년에 폐지되었다가 경덕왕 때인 757년에 부활하였는데,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을 위한 녹읍으로 삼은 것은 신라 하대 소성왕 때이다.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정답 ③ |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 상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으로 훗날 조선 세조 때 건립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3층 건물이지만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통층 구조이다.

【오답풀이】

- ③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곳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서탑)이다.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
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
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
습니다. ... (중략)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
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
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정답 ④ | 조선의 교육기관 | 중
(가)의 교육기관은 서원이다.
④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립 교
육기관이었다.
【오답풀이】
① 지방 군현 단위에 설치된 관립 학교는 향교이다.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친 곳은 서당
이다.
③ 성적 우수자에게 문과(대과)의 초시를 면제해 준 곳은
성균관이다.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
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
이 포함되어 있었다.

- | | |
|-------------|-----------|
| (가) | (나) |
| ① 조·일무역규칙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일무역규칙 | 조·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러수호통상조약 |

정답 ① | 외국과의 조약 | 중
(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무제한 곡식 유출, 무항
세 규정이 들어 있었던 조약은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
이다.
(나) 청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서양 세력 중 최초로 체결한
조약으로 거중조정 및 최해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던 조
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
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
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
를 편찬하다.

-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정답 ② | 조선의 중앙 통치 조직 | 상
다음의 인물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이다. 얼핏 보면 이
이에 관해 묻는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중앙 통치 조
직에 관해 묻는 문제이다.
② 이조좌랑은 이조의 정6품 관직으로 정5품 이조정랑과
함께 이조전랑이라 불리며 삼사 관원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오답풀이】
①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책을 간쟁하던 기
관이다.
③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④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이자 경서 등을 관장하는 역할
을 하였던 기관이다. 서적 출판 및 간행을 전담한 기구는 교
서관이다.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
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
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
하였다.
-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
주의를 비판하였다.

정답 ② | 박은식 | 중
다음 글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다.
②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나라는 형(形)이
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조선 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정인
보이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한 인물은 김구이다.
④ 「독사신론」을 저술한 인물은 신채호이다.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다) → (가) → (라)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② | 해방 이후의 정세(순서) | 중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한 것은 1948년 4월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② (나) → (다) → (가) → (라)이다.